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300천km ²	G D P	2,541억 달러 (2012)
인구	103.8백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2,448달러 (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 공화제	통 화 단 위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환 율(달러당)	41.12 (2012년 평균)

- 필리핀은 1565년부터 스페인 및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1943년에는 일본의 점령을 받기도 하였음.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 니켈, 임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음.
- 지역 및 계층 간의 심한 소득격차, 정치권의 부정부패, 회교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으로 정치, 사회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2010년 5월 10일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세계 정치사에서 최초로 모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필리핀에서는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4.2	1.1	7.6	3.9	6.6
재정수지 / GDP	0.0	-2.7	-2.3	-0.8	-1.9
소비자물가상승률	8.3	4.2	3.8	4.7	3.5

자료: IMF, EIU.

□ 2012년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6%대의 경제성장률 시현

- 2010년 고정자본투자가 전년 대비 19.5% 증가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확대되어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7.6%를 기록함.
- 재정지출 축소와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홍수 피해에 따른 1차 산업 부진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3.9%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 및 PPP 사업 이행을 통한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2012년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은 6.6%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도 견고한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6%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에는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세 둔화

- 2011년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 수준으로 상승함.
- 2012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하락과 폐소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에는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정부지출 증가로 확대

- 필리핀은 취약한 세수기반 및 세무행정능력 미흡에 따른 낮은 세수입과 지역 표심 획득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예산 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려 왔음.
- 정부의 긴축정책, 민영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08년에 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수준을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경기 침체,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민영화 자산 매각 처리 부진,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2.7%로 확대됨.
- 2010년에는 전년도 감세 정책의 영향과 5월 중 대통령 및 의회 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하반기 신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축소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3%를 기록함.
- 2011년 상반기 중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8%로 축소됨. 한편, 2012년에는 경기부양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

- 필리핀의 산업화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수입대체, 농업 및 산림 자원 수출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열악한 인프라 및 높은 전기세는 제조업 관련 투자시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필리핀 경제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1%로 서비스업 56.4%에 비해 낮은 편임.

- 또한, 제조업 중에서는 정유 및 연료제품, 반도체 및 전자부품 외에 소비재 산업의 비중이 큰 편이며, 수출품목도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 전체 수출의 60%에 이를 정도로 수출품목이 집중되어 있음.

□ 중국, 일본, 미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 형성

- 필리핀은 일부국가(중국, 일본,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1년 기준 3개국이 필리핀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5%로 중국 26.6%, 일본 17.6%, 미국 17.3% 순임.

□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재정적자

- 필리핀은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대통령(1965년~1986년) 독재 정권시 부정부패 문제와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대통령(1998년~2001년)의 부동산 투기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따른 사임,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대통령(2001년~2010년)의 선거부정과 친인척의 뇌물 수수에 따른 탄핵 위기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옴.
 -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2012년 필리핀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74개국 중 105위로 2011년 129위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조세회피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세수율이 낮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의 개발잠재력

- 필리핀은 구리, 금, 니켈, 은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에 대한 합헌 판결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100%까지 허용됨에 따라 이후 광물자원, 석유 가스의 탐사 개발 등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

- 취약한 인프라 등에 따른 높은 생산비 및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개발이 부진했으나, 자원가격 상승에 따라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 필리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BPO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 서비스 산업이 GDP의 56.4%를 차지하는 필리핀은 최근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필리핀의 BPO 산업은 세계 1위로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IT-BPO 분야에서 2011년에는 매출액 110억 달러, 고용인원 63만명을 기록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Roadmap 2016'을 통해 2016년까지 매년 20%이상의 성장을 통해 총 매출액 250억 달러 달성, 필리핀 GDP 9% 기여, 세계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숙련된 영어구사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친절한 국민성,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 부족한 세수로 인프라 건설 사업을 민관협력 방식(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해결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및 심의 기간 단축 등 투자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PPP 센터를 통해 NAIA 고속도로 2단계 사업, Daang Hari-South Luzon 도로 사업, Puerto Princesa 공항개발 사업 등 10여개 프로젝트의 입찰을 추진하는 등 미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음.

□ 2012년 글로벌경쟁력지수 10단계 대폭 상승

- 매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필리핀의 글로벌경쟁력 지수는 2011년 75/142에서 2012년 65/144로 10단계 상승했으며, 분야별로는 시장 효율성, 노동시장의 효율성, 기술 수준 및 시장규모 등에서 개선되어 순위가 상승하였음.

- 재정적자 축소, 안정적인 경제성장, 세수확보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부의 부정부패,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음.

3. 대외거래

□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수입증가율 둔화로 상품수지 적자 축소

- 필리핀은 원유, 식료품,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 중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의 반도체 등 전자품목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소비 수요 증가, 전자품목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1년에도 지속되어 상품수지 적자는 155억 달러로 확대됨.
- 2012년에는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수입증가율 둔화와 전자제품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139억 달러로 축소됨.

□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필리핀은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무처리아웃소싱(BPO)과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수지 흑자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소득수지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음.
- 2010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소득수지가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 확대와 화물 운임비용 및 해외여행자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축소로 경상수지는 89억 달러로 축소됨. 2011년에도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71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 상 수 지	3,627	9,358	8,922	7,078	7,721
경상수지 / GDP	2.09	5.56	4.47	3.15	3.10
상 품 수 지	-12,885	-8,842	-10,966	-15,450	-13,944
수 출	48,253	37,610	50,748	47,231	51,292
수 입	61,138	46,452	61,714	62,681	65,236
외 환 보 유 액	33,193	38,783	55,363	67,290	71,235
총 외 채 잔 액	64,780	64,393	73,873	78,450	85,643
총외채잔액 / GDP	39.6	40.7	39.1	39.7	39.8
D S R	9.3	9.9	9.9	9.1	8.3

자료: IFS, EIU.

- 2012년에는 관광객 및 해외근로자 송금 확대 및 일본과 미국으로 전자 제품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보다 확대된 7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 대비 10개월분 확보

- 양호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필리핀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급증 및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시현으로 필리핀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012년 712억 달러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 추이 : 554억 달러('10) → 673억 달러('11년) → 712억 달러('12년)

-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0개월분을 확보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 : 5.3개월('08) → 7.6개월('09) → 8.5개월('10) → 10.1개월('11년) → 10.0개월('12년)

□ 외채상환부담은 과중한 수준

- 필리핀의 총외채규모는 2012년 말 기준 GDP의 39.8%로, 정부 재정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해외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이 비교적 큰 편임.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점차 하락하여 2011년 기준 17.8% 수준으로 개선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당선 후 안정적인 정세 지속

- 2010년 5월 10일 대선에서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전 대통령 (1986년~1992년)의 아들인 자유당(Liberal Party)의 베니그노 아키노 (Benigno Aquino III)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 동 선거 때부터 자동검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선자를 조기에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수작업 개표로 인해 초래되었던 후보 진영 및 유권자간 폭력사태 발생 등의 정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
- 필리핀은 8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당간 정책 차이가 아닌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력 인물의 인기 등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도 2009년 8월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청렴한 이미지로 새로이 급부상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됨.
- 아키노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임.
 - 2011년 4분기에 실시된 아키노행정부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아로요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과 갈등

- 아키노 대통령은 부패 청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취임 전부터 아로요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취임 직후 부패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아로요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를 설치하였음.
- 아로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임명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2010년 12월 중 진실위원회 설치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양측 간 즉각적인 마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
- 그러나 아키노 현 대통령이 전 정권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2010년 5월 의회 선거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아로요 전 대통령이 제1야당인 Lakas-Kampi-CMD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함.
- 2011년 10월 말 아키노 정부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아로요 전 대통령 등 아로요 집권시절 고위관료 30여 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였고, 2011년 11월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7년 총선 선거결과 조작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2012년 보석 석방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 요인 상존

- 전체 국민의 22.6%가 일일 소득 1.25달러로 생활하는 등 극빈층은 두터운 반면 중산층은 미약하며, 빈곤층의 6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 간 빈부격차가 큰 편임. 이러한 빈부격차로 인해 범죄의 증가 및 폭동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

□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존재

-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과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 사프(Abu Sayyaf) 등 이슬람 단체가 이슬람지역 내 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정부군에 테러는 물론 무력으로 공격을 하기도 함.

- 2005년 9월 아로요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해방전선간 개최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어 40여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안에 합의했으나, 가톨릭계 시민들 및 의회의 반대와 2008년 8월 협상안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평화협상안이 무산된 이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음.

- 아키노 신임 행정부는 평화협상 재개를 위해 모로이슬람해방전선 및 공산반군과 2011년 2월에 첫 공식협상을 재개하였으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진전은 미진한 상태임.

* 필리핀 남쪽에 위치한 민다나오 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의 이주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이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희생됨.

○ 루손 섬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 공산당인 신인민군(NPA), 민족민주전선(NDF) 등 공산 반군은 정부와의 협상 진행 등으로 테러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 경제, 군사, 안보 등에 있어 긴밀한 관계 유지

○ 미국은 필리핀의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지난 40년 간 5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원조를 지원해 왔으며, 미국 내 필리핀 거주민 300만 명과 필리핀 내 10만 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양국간 상호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 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여 2008년 미국이 필리핀에 3,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등 안보협력관계 유지 강화에 노력해 왔음.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우호적 관계 지속

○ 일본은 필리핀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투자국으로 필리핀이 수령하는 대외원조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 필리핀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3년 양국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하였고 2008년 필리핀 상원의 비준동의로 발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국간의 교역은 증가하고 있음.

□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 고조

- 필리핀은 ASEAN의 설립 회원국으로 이를 위주로 지역안보 및 통상 증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어 당분간 양국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정상적인 채무상환

- 필리핀은 파리클럽으로부터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양호한 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 2012년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39.8% 수준으로 비교적 과중한 편이나, 해외근로자 송금의 유입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이 17.8%(2011년)로 비교적 낮아 채무불이행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현황

- 2012년 3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및 높은 대외채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 및 재정수지 개선 등을 반영하여 필리핀 국가신용등급이 종전의 4등급으로 유지됨.
- S&P는 필리핀의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 흑자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대외 유동성 개선으로 2010년 11월 중 필리핀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실현 및 재정상태의 개선 등으로 2012년 7월 BB+로 상향 조정함.

- Moody's는 아키노 정부의 지속적인 세수증가 노력, 대외환경 악화에도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 등을 이유로 2012년 10월 중 필리핀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a2에서 Ba1로 상향 조정함.
- Fitch도 2011년 6월 필리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이유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2 (2012. 8)	C2 (2011. 12)
OECD	4등급 (2012. 3.)	4등급 (2011. 3.)
S&P	BB+ (2012. 7.)	BB (2010. 11)
Moody's	Ba1 (2012. 10.)	Ba2 (2012. 5.)
Fitch	BB+ (2012. 6.)	BB+ (2011. 6.)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1969년), 무역협정(1978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3년), 이종과세방지협정(1984년), 투자보장협정(1994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필리핀은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임.
 -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15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임.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2년 12월말 현재 신규법인 수 1,406건, 26.6억 달러(투자누계 기준)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임.

<표 4> 한·필리핀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필리핀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5,837	7,338	8,210	반도체, 석유제품, 기타철강제품
수 입	3,488	3,571	3,283	반도체, 기호식품, 임산부산물
합 계	9,325	10,909	11,493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1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와 투자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9%로 둔화됨. 2012년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증가로 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도 견고한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6%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해외근로자의 송금 및 관광수입에 따른 서비스·소득 수지의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 6월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취임 후 필리핀은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국민들의 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만, 열악한 치안과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등 사회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필리핀의 IMF차관의 조기상환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2011년 이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였음.
- 한편,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만연한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격차 등이 경제 구조상 취약점으로 작용하나 BPO 산업 및 풍부한 광물자원은 필리핀 경제의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사역 서은주 (☎02-3779-5705)

E-mail: seoeunchu@koreaexim.go.kr